



민주당 광주 서구(을) 지역위원회(위원장 김영진 국회의원) 소속 당원 200여 명은 18일 오후 광주 서구 금호동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긴급 당원대회를 열고 당 지도부가 광주 서구를 '4+4 아권연대' 협상지역으로 선정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 관련기사 3면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링스헬기 이번엔 해상 불시착

### 주말밤 소청도...진도 추락 헬기는 동체·실종자 못찾아

지난 3일새 해군 소속 링스헬기 2대가 초계비행 중이었다 추락,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됐으나 아직까지 원인을 찾지 못해 비상이 걸렸다.

해군은 지난 15일 밤 진도 동남쪽 14.5km 해상에서 순찰 중 추락한 해군 3함대 소속 링스헬기에 대한 수색 나흘째인 18일에도 동체나 실종자 등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해군은 합정 9척과 해경 합정 15척, 헬기 10대 등을 투입해 사고 해역인 진도군 조도면 독거도 동쪽 2.2km 해

상을 중심으로 바다 밑을 정밀 수색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 해역의 수심이 30~50m에 달하고 빨층으로 형성돼 바로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시야가 좋지 않아 수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직 추락 헬기나 실종자 발견 등에는 뚜렷한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해군은 이와 함께 서해 소청도 해상에 불시착한 해군 링스헬기의 기체가 인양됐다고 18일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이날 "전날 밤 10시 13분 사고가 난 링스헬기의 인양작업을 벌여 오늘 오전 7시30분께 청해진

함이 헬기를 인양하는 데 성공했다"며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기체는 거의 온전한 상태여서 목포 3함대로 이송해 정비하면 정상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함대 소속인 이 헬기는 전날 오후 10시13분 소청도 해상 남방 12.7마일 해상에서 초계비행을 마치고 한국형 구축함인 왕건함(4천500t급)으로 복귀하다 450여m 앞 해상에 불시착했으며 조종사 현 모 소령(진급 예정) 등 승무원 3명은 안전하게 구조됐다. /연합뉴스

## 기초단체장 공천도 아수라장

민주당 광주·전남지역 기초단체장 공천이 논란과 반발 속에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다.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재심 청구를 하고, 심지어 나주시장 경선은 광주·전남지역 단체장 경선 과정에서 처음으로 재경선 논의가 이뤄지는 등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시민배심원제도가 적용된 무안군수 경선은 무기한 연기되는 등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경선도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커뮤니티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 양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 나주 후보 확정해 놓고 재경선 논의 담양 탈락후보 "선거 부정"재심 요구 구례 "공무원 선거 개입" 탈락자 반발 나주 노관규시장 후보등록 거부 나주 순수성 의혹 배심원 선정 연기

음이 생긴 셈이다. 특히 이 중 재경선이 논의되고 있는 나주시장 경선의 경우 재경선이 치러질 경우 재심 청구가 이뤄진 다른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나주시장 재경선 논의는 지난 12일~13일 여론조사방식으로 실시된 민주당 나주시장 경선에서 임성훈 예비후보에게 패한 강인규 예비후보가 '유령 당원' 의혹을 제기하며 재심 요청을 하고, 이를 민주당 재심위원회가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19일 오후 2시 도당 공심위를 열고 나주시장 재경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담양군수 경선에서 탈락한 유창중 예비후보도 경선 이후인 지난

15일 경선과정에서 불법·탈법 의혹을 제기하며 재심청구를 했고, 민주당 구례군수 경선에서 탈락한 박인환 예비후보도 "여론조사가 현직군수에 유리하게 진행됐고, 공무원 선거 개입 의혹이 있다"며 재심을 요청했다.

이 같은 잇따른 재심 요청 현상은 후보들의 불복도 문제지만, 경선 관리상의 잦은 허점이 "재심 청구"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경선 과정에서 당원명부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각 후보들의 불법·탈법 경선운동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 등이 문제라는 것이다. 시민공천배심원제도가 도입된 무안군수 경선은 무기한 연기되는 등

빠져가려고 있다. 예초 18일 지역배심원과 전문(외지)배심원 각각 100명씩이 참여해 군수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지역배심원 선정과정에서 '조직 동원' 우려가 제기되면서 무기한 연기됐다.

순천시장 경선은 노관규 순천시장이 후보 등록을 포기하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17일 민주당 순천시장 경선 후보 접수결과 구희승·조보훈 등 2명의 후보만이 등록했다. 노관규 시장과 경선 후보 단일화에 참여했던 이은 예비후보도 '단일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무소속 출마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순천시는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당내 분란이 증폭되고 있다. 노 시장은 순천시장 경선 방식이 전남지역 단체장 경선에서 유일하게 '체육관경선'을 도입한 데 대해 줄곧 형평성 논란을 제기해 왔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매번 선거 때면 나타나는 경선 후유증이 이번 선거에도 재연되고 있다"면서 "이는 민주당의 경선관리 부재가 낳은 후유증으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외부 폭발물 파편 바다밑 정밀 수색

### 북한 "천안함 침몰 우리와 무관"

천안함 함수 인양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은 백령도 해상에 가라앉은 함수 부분의 절단면도 너털너털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외부 폭발 가능성을 거의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2면>

해군은 천안함 침몰사고 24일째인 18일, 함수 인양에 필요한 4개의 체인 중 3번째 체인 연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인양팀이 유속이 느린 정조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작업을 해 오늘 오후 1시30분께 직경 90mm의 3번째 체인을 함체와 대형 해

상크레인에 연결했다"고 말했다. 함수 인양팀은 3번째 체인을 연결하고 나서 마지막 4번째 체인 연결을 위한 유도용 로프를 거는 작업을 하려고 했지만 오후 들어 강한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게 일어 작업을 일시 중단했다.

폭발 원인과 관련, 해군 고위관계자는 이날 "함수 인양작업을 위해 잠수정 잠수요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함수 절단면도 함미와 같이 너털너털하게 파손됐다"면서 "함수를 인양하면 외부폭발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했다

는 정황이 더욱 굳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군합동조사단은 현재 170여개의 파편을 수거해 분석 중이지만 대부분 천안함 선체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파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은 결정적 단서를 찾기 위해 사고해상 반경 500m 해역에 무인탐사정 '해미래호'를 투입해 음파탐지기와 수중카메라로 바다 밑을 살피고 수색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지난 17일 천안함 침몰 사고가 자신들과 무관하며 북한이 관련했다는 주장은 '날조'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 금호타이어 노사 재협상 타결

### 21일 노조 찬반투표

금호타이어 노사 협상이 18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잠정 합의안이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지 9일 만이다. 이날 타결된 재협약안에 대한 찬반투표는 오는 21일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공장별로 진행된다. <관련기사 8면>

결친 마라톤 협상에 이어 이날 오전 11시부터 제2차 본교섭을 열어 ▲정리해고자 189명 중 취업규칙 준수 개별확약서를 제출한 근로자 원직 복직 ▲워크아웃기간 취업규칙을 어길 경우 정리해고 ▲기본급 10% 삭감, 5% 반납 ▲상여금 200% 반납(단, 올해는 100% 반납) ▲597명 단계적 도급화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또 워크아웃 기간 중 정년 퇴직자들에게 별도 보안책 마련 등 노조 측이 제시한 별도 요구안도 상당 부분 수용됐다. 해고자들의 복귀 시점은 회사가 정한 절차가 완료된 시점의 다음 날로 하되 찬반투표 가결 후 10일 이내로 하기로 했으며, 해고 기간은 무급으로 하기로 했다. 재협약의 최종 통첩 시한(20일)을 이를 앞두고 노사가 일단협을 전격 합의함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 재개를 통해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
| 일반석  | 10,000원 | VIP석 | 50,000원 |
| 가족석  | 5,000원  | 블랙박스 | 20,000원 |
| 학생석  | 3,000원  | 주차비  | 5,000원  |
| 어린이석 | 1,500원  | 음식료  | 5,000원  |